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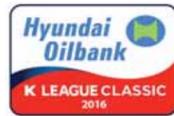
광주 FC, 포항전 무승 징크스 깨고 클래식 생존한다



광주 FC가 2일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2016시즌 홈 폐막전을 치른다. 사진은 지난 7월3일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홍준호(왼쪽)가 공을 다루고 있는 모습. <광주 FC 제공>

오늘 시즌 마지막 홈경기...7·8위 사생결단

포항에 4무6패 열세... 승리해야 자력 잔류



프로축구 광주 FC가 2016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축포를 쏜다.

광주 FC는 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2016 K리그 클래식 37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홈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이자 2년 연속 K리그 클래식 잔류를 확정하기 위한 경기다. 앞선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한 광주는 11승 12무 13패 승점 45점으로 하위 스플릿 최고 순위인 7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위 수원 삼성과 승점 1점차, 강등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11위 인천 유나이티드와도 3점차에 불과하다. 이번 포항전까지 두 경기밖에 남지 않은 만큼 잔류를 확실할

수 없다.

광주가 홈 폐막전 상대로 만나는 포항은 난적이다. 역대 전적이 4무6패로 1승도 신고하지 못했다. 광주는 포항전 무승 징크스를 깨고 K리그 클래식 잔류를 이루겠다는 각오다. 포항 역시 11위 인천과 승점 42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 만큼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가 이번 포항전에서 승리할 경우 10위 포항과 승점이 6점차까지 벌어지면서 자력으로 잔류를 이루게 된다.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면 수원 삼성과 인천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수원이 이길 경우에는 11위 인천과의 승점이 4점차가 되면서 광주의 잔류가 확정된다. 두 팀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 광주는 시즌 최종전에서 잔류를 결정지어야 한다.

광주가 패를 남긴다면 하위 스플릿 라운드 순위가 요동친다. 포항에 7위 자리를 내주고 8-11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자동 강등은 피했지만 승강 플레이오프의 운명은 남아있다.

광주는 '무등산 패트리엇' 정조국에 초점을 맞춰 포항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조국은 올 시즌 18골을 넣으면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포항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두 골을 넣으며 정조국의 득점왕 행보가 시작된 만큼 자신감이 넘친다.

무릎 부상에서 돌아왔던 수원 FC와의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이후 2경기 동안 득점은 없지만, 지난 성남FC전에서 골대를 맞추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포항은 최근 3경기 무승 속에 6실점을 하며 수비 불안에 노출하고 있다. 여기에 양동현과 신광훈이 경고누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점도 약점이다.

이제 광주에 두 경기만 남았다. 홈에서는 마지막 경기다. 포항 징크스 탈출과 함께 2년 연속 클래식 잔류를 이루려는 광주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된다.

한편 광주는 홈 폐막전을 맞아 남문매포소에서 미니축구게임 행사를 열고, 경기 종료 후에는 올 시즌 성원을 보낸 팬들을 위해 선수단과 그라운드 하이파이브 행사 및 사인볼 증정, 포토타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득점 선두' 정조국 클래식 MVP 될까

오스마르-레오나르도와 3패전...8일 시상식

올해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최우수선수상(MVP)을 놓고 정조국(광주·사진), 오스마르(서울), 레오나르도(전북)가 3패전을 벌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8일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예정된 2016 현대오일뱅크 K리그 대상 시상식을 앞두고 부문별 수상 후보 명단을 1일 발표했다.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돌아갈 MVP 후보 중 유일한 '토종'인 정조국은 올 시즌 광주FC 이적 후 골잡이로 완벽히 부활했다.

정조국은 정규리그 29경기에서 출전해 18득점을 기록, 17골을 넣은 아드리아노(서울)를 제치고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오스마르는 올 시즌 외국인 필드플레이어 최단기간 100경기 출전 기록을 작성했고, 외국인 선수로는 드물게 FC서울의 주장을 맡는 등 '모범 용병'으로 꼽힌다.

수비수지만 4골 3도움으로 공격 공헌도도 높다.

레오나르도는 전북 현대에서 보낸 다섯 번째 시즌인 올해 32경기에서 12득점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전복의 선두 질주에 이

끌었다.

감독상 후보로는 선두 다름 중의 최강희 전북 현대 감독과 황선홍 FC서울 감독, 그리고 윤정환 울산 현대 감독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조건인 지도자 자격증 문제 때문에 시즌 도중 수석코치로 내려간 조성환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은 후보 명단에 들지 못했다.

유망한 신인급 선수에게 주는 영플레이어상 후보로는 김동준(성남), 송시우(인천), 안현범(제주)이 올랐다.

1985년 이후 골키퍼가 신인상 혹은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어 김동준은 프로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골키퍼 출신 영플레이어상을 노린다.

올림픽대표팀 주전 골키퍼이기도 한 김동준은 경기당 평균 1.33점만 내주며 성남FC 골문을 틀어막고 있다.

안현범(7골 4도움)과 송시우(5골 1도움)도 공격수의 자존심을 걸고 영플레이어상에 도전한다.

한편, 챌린지(2부 리그) 감독상 후보로



는 최윤겸 강원FC 감독, 손현준 대구FC 감독대행, 최영준 부산 아이파크 감독이 선정됐다. 또 MVP 후보로는 조현우(대구), 김동찬(대전), 포프(부산)가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 FC 밀린 임금 은행빚으로 해결

시, 운영자금 5억 대출

국내 프로축구 K리그 광주시민프로축구단 광주FC 선수단이 받지 못한 급여를 은행 대출로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축구단 재정 확충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FC 운영자금 5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광주FC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은행 대출을 받아 이중 3억원을 선수와 광주FC 사무국 직원의 밀린 임금인 10월분 급여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FC는 이날 또는 2일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11월분 급여도 대출금과 기존 FC 자금을 더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 광주시의 추경예산안 20억원이 통과되면 12월

분 급여와 FC 운영자금 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추가대출 여력이 있어 일단 대출금으로 급여분체를 해결하고 추경예산으로 대출도 상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사의를 표명했던 정원주 광주FC대표이사도 당분간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출을 통해 급여체불이라는 급한 불은 꺼지만, 이번 조치는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재정지원금과 광고·후원금 등이 늘어나지 않으면 내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광주FC는 올해 전체 편성예산 90억원 중 60억원을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았다.

올해는 후원금이 크게 줄면서 12월 추경예산이 집행되기 전 눈썰미 막혀 선수단과 사무국 직원의 10월분 급여를 제때 주지 못했다. /연합뉴스

기성용의 스완지, 9경기째 '승리 가뭄'

스토크시티에 1-3 패

기성용이 87분을 땀 스완지시티가 스토크시티에 패하며 리그 9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다.

스완지시티는 1일(한국시간) 영국 스토크 온 트렌트의 브리타니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2017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스토크시티 원정경기에서 1-3으로 졌다.

스토크시티는 전반 3분 조 엘런이 문전에서 질러준 공을 윌프레드 보니가 골대 바로 앞에서 오른발로 차넣으며 앞서나갔다. 그러나 스완지시티는 김피 시구르드손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웨인 라우틀리지가 수비수와 경합 끝에 헤딩 슈팅, 5분 만에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공격에서 우위를 점한 스토크시티는 전반전에만 골대를 3번이나 맞췄다.

스토크시티 찰리 애덤이 전반 22분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때린 슈팅은 오른쪽 골대를, 전반 34분 페널티 지역 전방에서 때

린 슈팅은 왼쪽 골대를 맞췄다.

스토크시티는 전반 38분 역습기회에서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가 골키퍼까지 제치고 왼발 슈팅했지만 이번에도 왼쪽 골대를 맞췄다.

스완지시티는 그러나 후반 10분 자책골을 내주며 리드를 허용했다. 스토크시티 라마단 소비가 왼쪽 측면에서 문전으로 연결한 공이 스완지시티 수비수 알피 마우손의 발에 맞고 들어갔다.

스토크시티는 후반 28분 추가골을 넣으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엘런이 때린 슈팅이 골키퍼에게 맞고 나왔지만, 엘런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 공을 옆에 있던 보니에게 연결했고 보니가 헤딩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기성용은 이날 중원을 누비며 공수에서 힘을 보탤지만 득점기회를 만들지는 못했고, 후반 42분 교체됐다. 스완지시티는 8월 13일 번리와의 개막전 승리 후 2무 7패를 기록했다. 지난달 4일 밤 브래들리 감독 부임 후에도 1무 2패로 부진하다. /연합뉴스

차범근 "전력분석관 두리, 걱정반 기대반"

차범근 2017 FIFA U-20 월드컵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첫발을 내디딘 아들, 차두리를 두고 걱정과 기대를 드러냈다.

차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KT 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KT업무협약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차두리 전력분석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아빠로서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도자를 하려면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차)두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대표팀 전력분석관이 됐다"라고 입을 열었다.

차두리는 지난 27일 대표팀에 전력분석관으로 전격 합류했다.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 전력분석관 직함을 달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사실상 코치직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차두리는 선수 은퇴 이후 지도자의 첫걸음을 위기에 빠진 대표팀에서 내딛게 됐다. /연합뉴스

차범근 부위원장은 "그 자리는 간단한 자리가 아니다. 책임과 결과를 받아야 한다"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차두리 전력분석관의 대표팀 합류 과정에서 조언해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보다 아내와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며 웃었다.

이어 "(차)두리가 (선수 시절) 율리 슈틸리케 감독에게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 (대표팀에 합류해 달라는) 부탁이 왔을 때 거절하지 못한 것 같다"라며 "(차)두리도 혼자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대도 내비쳤다. 차 부위원장은 "나와 (차)두리의 성격은 다르다"라며 "나보다 다양한 경험을 했고 유럽 축구에 관한 정보도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두리는 독일어도 나보다 잘한다. 대표팀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